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1
-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 [7] 지역 애착'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 귀향을 위하여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이번 호에서는 소멸하는 지역의 미래를 돌봄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일본 시가현 에이겐지^{永源寺} 지역 돌봄공동체 협업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전통적 의료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돌봄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의 재택진료 시범사업은 제도화 측면에서는 조금씩 그 유의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단계이고 좀 더 포괄적인 협력체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의료진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구성원 간의 협업과 커뮤니티 기반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에이겐지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도형 돌봄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실천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All Community Care}이라는 개념을 통해 돌봄 민주주의의 구체적 장소에서의 구현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 지역 돌봄공동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된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는 돌봄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의료진 중심의 재택진료와 병원 기반의 돌봄 서비스 확장을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의 치료와 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관계의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택의료지침서〉의 저자 김창오 원장은 재택의료센터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방문 진료와 임종기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중심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돌봄 서비스는 단순 의료가 아니라 풀뿌리에서의 주민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극도의 개인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분절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를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는 결코 구현할 수 없다.

스마트 폰에 보이지 않게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꾸 홀로 살기를 선택하는 반사회적^{anti-social}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과 같은 도시 공간에서도 커뮤니티 기반의 가벼운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 안에서의 관계 맺기는 돌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가?”, “삶의 최종 단계에서 어떤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가?”라는 돌봄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가족형, 국가형, 기업형 장기요양 돌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유지하는 관계와 지지를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

가족의 유형은 급격히 변했다. 국가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돌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정도로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형 돌봄 서비스는 인격적인 돌봄의 관계가 사라진 시간 보내기식 서비스 제공으로 전략하였다. 이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가치구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평생 주기적 상호 돌봄을 어떻게 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지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노화방지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노화를 수용하는가가 돌봄의 핵심 가치이다

최근 큰 주목을 받는 노인학 전문의 정희원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 돌봄 공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저속노화^{slow aging}’를 설파하고 있다. 이는 생애 주기적 돌봄의 필요성과 공동체 중심의 지역형 통합 돌봄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한 전망보고서는 2025년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 수치는 2023년에 이미 현실이 되어서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는 124만 명에 이르렀고, 심지어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42년까지 돌봄 서비스 인력은 최대 155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였다. 이는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의 붕괴가 머지않아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실 건강 문제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과제가 아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



에이젠지 클리닉

률이 중장년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건강 불평등이 세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견지에서 정 교수의 '저속노화' 주장은 돌봄 위기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생애 주기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포괄적 돌봄체계의 중요성과 연결된다.

'저속노화'는 늙지 않^{anti-aging}기 즉, 생물학적 노화를 억제하는 의료기술 중심 접근이 아니다. 이는 삶의 전반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점을 정착시키는 '생애 주기적 자기 돌봄'의 개념으로, 노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신체와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순환적 건강 모델이다. 이를 단순한 개인의 건강전략이 아닌 사회적 실천과제로 강조한다. 특히 정제된 곡물, 단당 중심의 식품시장 구조와 장시간 노동 등 가속노화를 조장하는 사회환경을 문제 삼는다.

이 개념은 의료 중심의 치료적 접근을 넘어서 돌봄을 호혜성과 상호의존에 기반한 공동체적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돌봄은 단지 가족이나 국가의 역할로 한정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 실천 사례로 김창오 원장의 재가 돌봄 즉 재택 의료 경험을 들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김창오 원장은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가 아닌 재가 돌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돌봄이 단지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 맺기, 삶의 존엄 유지, 임종까지 의미 있는 동행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실천은 아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서서히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의료인들이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고수가^{高受價}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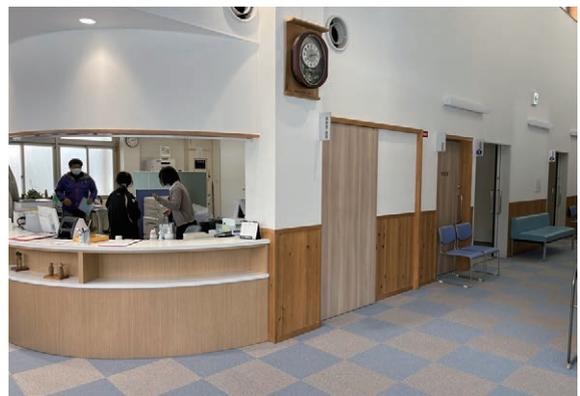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시장화 경향은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돌봄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필자들은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시민 학습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정 교수는 병원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대상 건강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돌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노화방지^{anti-aging}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한 건강시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공공 보건 교육 및 예방 중심 정책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저속노화는 사회적 교육, 시민참여, 지역 토론의 결합을 통한 민주적 건강실천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과 실천을 꾸준히 견지할 수 있는 사람, 즉 풀뿌리 세계시민은 준비되어 있는가? 풀뿌리 세계시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 비교맥락에서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에이겐지 클리닉^{永源寺診療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이겐지 사례는 한 명의 헌신적 의사만으로는 지역 돌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에이겐지는 대표적인 인구소멸과 공동체 해체의 이중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민 간 협력적 자세와 수평적 문



에이겐지 클리닉 내부 모습

화가 일부 존재하지만 여전히 다수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전략을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돌봄 민주주의는 구체적 장소를 공유하는 풀뿌리 세계 시민의 관점을 갖춘 지역 주민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정책적 전환이 중요하다. 개인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구성원 모두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해야 한다. 부연하면 시민들이 저속노화 및 자기 돌봄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공공 학습의 기회와 공간이 절실하며 그것은 지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는 진부해진 과제이지만 공공-민간-시민 간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헬스워싱^{health washing}’을 경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공보건과 공익성을 갖춘 기업과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상승적으로 결합한다면, 돌봄 민주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주민 간 소통, 협력, 연대 경험의 회복이 절실하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외와 격차를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에이겐지 클리닉 방문진료 모습

작금 한국 사회는 돌봄과 건강의 위기 앞에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저속노화는 단순한 건강전략이 아니라, 돌봄을 생애 주기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실천 담론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돌봄은 개인도, 국가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복합적 사회과제이다. 개인 차원의 책임과 노력만으로는 건강 불평등과 돌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이를 구조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업도 사회적 책무성을 기반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풀뿌리 세계시민이 지역공동체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을 높이고 협동심을 배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상호적 돌봄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매개로 건강, 시간, 노동,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돌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회복력도 강화된다. 이것이 동아시아가 마주한 지역소멸, 초고령화와 초불평등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다.

일본의 시골 마을 ‘에이겐지’, 돌봄의 미래 보여준다

다카시 하나토^{Takashi Hanato} 원장이 에이겐지 지역에서 꿈꾸는 ‘지역공동체 통합돌봄^{All Community Care}’의 풍경은 지난해 호에서 살펴본 대만 타이둥 사례와 사뭇 다르다. 지난 2월 12일 에이겐지 클리닉을 방문한 필자에게 하나토 원장은 “지역은 지역이 돌봐야 해요. 지역 주민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라고 강조한다.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시의 산기슭 마을, 에이겐지의 인구는 48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용한 마을에는 일본의 미래,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클리닉이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로 55세가 된 풀뿌리 세계시민이자 의사인 다카시 하나토 원장이 있다. 그는 20년 넘게 이 마을 주민의 진료

를 책임지면서 단순한 '의료'를 넘어 '지역 돌봄공동체'를 키워가고 있다.

그는 "의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결국 오래가지 못하죠. 함께 해야 진짜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됩니다"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한다. 특히 그가 자기 가족을 돌보는 법과 에이겐지 공동체 돌보는 법을 지혜롭게 결합하는 것이 주목된다.

하나토 원장의 어머니는 차로 한 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왜 어머니 거주 지역과 가까이 이주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는 오히려 되묻는다. '섬김은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지역공동체 돌봄에 대한 소신이다. 자신이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게 꼭 직접 옆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 주치위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 돌봄 팀과 긴밀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최소 월 1회 어머니를 방문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환자도 돌볼 수 없다는 그의 원칙을 에이겐지 클리닉 방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토 원장은 클리닉 옆에 피트니스센터(GO TO Fitness)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



에이겐지 케어 월례 모임 모습

만 아니라 건강식 레스토랑(원장식당-시골집, Doctor's Restaurant-La Maison RUrale)을 오픈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하나토 원장은 "피트니스센터의 'GO TO'와 시골집의 'RU' 단어를 결합하면 'GOTORU'가 되는데 일본어(동사)로 '고생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 돌봄을 위해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스스로 만든 단어라고 한다.

이처럼 의료진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식당과 운동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하나토 원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도시는 좋은 걸 갖고 있고, 시골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죠."

이런 시설을 갖추에 따라 돌봄을 담당하는 젊은 의료진도 지역에 오랫동안 남게 된다. 자신도 운동 시설을 주 3회 정도 이용하면서 자기관리를 한다고 한다. 의료진에 대한 자기 돌봄이 부실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돌봄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레스토랑에는 히가시오미시 출신의 요리사가 근무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을 개발한다. 이제 는 외지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명소가 된 이 공간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 경제, 건강,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건강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처음엔 이 작은 마을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식당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가에 대한 하나토 원장의 답은 뜻밖이었다. 의료진을 위한 식사 공간이기도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의사의 전문성과 전문 요리사의 콜라보를 통해 질 좋은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식당으로 알려지게 되어 운영 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이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건강 식단 및 요리를 소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밥상 정보를 공유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 돌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소개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지역의 작은 식당은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의 중요한 교육과 정보 공유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은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되어야

2월 13일 에이젠지 클리닉을 다시 방문할 때 재가 방문 의료 현장에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토 원장이 한국 연구진을 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마련한 기회였다.

여느 의사처럼 하나토 원장의 하루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된다. 오전에는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클리닉에 나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진행한다. 그 오후 일정에 동행한 것이다.

에이젠지 클리닉의 오전 일정은 마을 주민들의 진료로 이어진다. 하나토 원장과의 점심 식사를 기대했는데 결국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점심도 거르기 일쑤다.

오후엔 클리닉 밖에서의 돌봄이 시작된다. 이날 그는 필자를 데리고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 정보 세미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음악 치유 시간까지 열린다. 마을의 삶이 흘러가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은 돌봄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것이다.

하나토 원장이 필자를 데리고 간 방문 장소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왕진 협업팀이 와 있었다. 한국에서 '왕진'이라 하면 대개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두 명이 동행하는 소규모 형태를 떠올린다. 그러나 에이젠지 클리닉

의 재택의료팀의 구성은 매우 달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식이요법사, 작업치료사, 약사, 영양보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남성 어르신 댁에 모였다.

방문 진료의 궁극적 목표는 '완치보다 존엄, 치료보다 신뢰'였다. 80대 중반 남성으로 초기 치매를 겪고 있는 이 어르신은 9명이나 되는 의료팀을 반갑게 맞이했다. 함께 자리한 딸도 방문 진료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보였다. 진료하는 동안 그들은 어르신이 생활상 불편한 부분, 식사, 목욕, 대변보기, 처방약 복용 등에 대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각자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이 현 상태에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논의한다.

진료팀 각자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그들 모두 환자를 존중하고 가족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신뢰에 기초한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하나토 원장은 1시간 정도의 방문 진료하는 동안에 거의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그저 듣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약 복용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돋보였다. 하나토 원장은 자신이 돌봄 서비스 방법을 주도하기보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9명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에이젠지 공공도서관 내부

제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만 타이둥의 의사 주도 돌봄 서비스 관련 회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누가 리더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하나토 원장은 의료처방과 관련해서만 전문적 의견을 내고, 대부분 시간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방문진료팀 간의 팀워크, 즉 친밀성과 협동심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오후에만 짧은 시간 내 세 가구를 방문하며 진행된 왕진은 마치 하나의 이동 병원^{mobile clinic} 같았다. 단순 치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이들의 움직임이었다. 하나토 원장은 '노인 돌봄의 핵심은 완치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관계 맺기를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의사는 환자의 눈을 마주 보고, 천천히 말하고, 기다려주고, 치료 결과보다 관계의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돌봄의 본질임을 그는 역설한다.

에이겐지 클리닉 사례가 한국 지역사회 돌봄 문제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도 지금, 돌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는 젊은 세대에서도조차 늘고 있다. 정부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심은 '의사'다. 가족,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지역 주민, 그리고 마을 전체의 결합은 미약하다.

성북구 돌봄의원 김창오 원장은 '재택의료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재택의료는 단순한 지역 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공적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은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관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지역 주민 간의 가벼운 관계부터 시작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수도권에서도 지역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물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10~15분 생활권 내에서 통합 돌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진짜 공동체는 위로부터 강요나 유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한명 한명이 관계 맺기에 나서야 하고 이것은 가벼운 공동체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마을의 통합 돌봄이 지속 가능해진다.

에이겐지 클리닉의 하루는 '작은 변화'의 연속이었다. 의사가 밥을 같이 먹지 못할 만큼 바쁜 이유는 단지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는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기에 시간이 빠듯한 것이다.

물론 돌봄은 운동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신에 지역 특색에 맞도록 많은 정책을 세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정책의 중심엔 반드시 사람이 있고 그들의 관계 맺기가 핵심이다. 귀국길에 하나토 원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돌봄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에이겐지 지역서 '전인적 돌봄 협업의 길'을 찾다

초고령화되는 농촌에서 '가벼운 공동체'로 돌봄의 미래



에이겐지 클리닉 식당

를 가꾸는 사람들의 목표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서로 돌봄에 마주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에이겐지 지역은 인구 4800명 중 고령자가 39%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화로 소멸하는 농촌 마을이다. 하지만 이곳은 동아시아 돌봄 연구자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특별한 장소이다.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통합 돌봄 실험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겐지 클리닉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피트니스센터, 건강 레스토랑, 도서관, 마을회관, 약국, 불교사찰까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마을은 돌봄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느슨한 협업의 실험장인 셈이다.

건강은 '자기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장기요양 중인 어르신들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 하나토 원장은 이 말을 의학적 판단이 아닌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건강을 단지 병의 부재로 보기보다는 건강을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비록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자세이다. 에이겐지 클리닉이 강조하는 '전인적 돌봄' 혹은 '지역 공동체 통합 돌봄'은 환자를 마지막 순간까지 품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 마을 주민의 40~50%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한다. 그 곁에는 항상 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자, 이웃이 함께한다. 임종까지 책임지는 것이 돌봄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돌봄에 대한 철학과 정의가 있는 하나토 원장은 아주 특별한 지역 돌봄공동체 리더이다. 지난 2월 11일과 13일 2회에 걸쳐 에이겐지를 방문하여 진료실 밖의 돌봄, 즉 재가요양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에 동행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나토 원장의 하루 일정을 동행한 저자는 그의 빠듯한 일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은 마을 주민의 진

료로 클리닉이 복적댄다. 오후엔 클리닉 밖이 그의 진료 및 돌봄 무대다. 오후에는 도서관을 찾았다. 에이겐지 지역 도서관은 어른들의 건강 정보를 알리는 공간이자, 요가 수업과 책 읽기 모임은 심신을 밝고 맑게 하는 사회적 진단과 처방의 공간이다. "여기선 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도서관 관장의 말이 인상 깊었다. 저녁에는 왕진이 이어졌다. 놀랍게도 의료진, 복지사, 약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총 9명의 팀이 함께 움직였다.

그렇다면 약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에이겐지 클리닉과 협업을 하는 약국은 돌봄의 허브가 되고 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마루야마 약국'은 약을 파는 곳만이 아니다. 오이시 카즈미 약사는 주민의 식생활을 코치하고, 불면증에 대해 상담하며, 치매 초기 증



에이겐지 클리닉 GO TO 피트니스센터

상을 검사하는 보건소장이다. 그녀는 “사람은 약만으로 낫지 않아요. 관계와 리듬이 있어야 회복도 옵니다”라고 돌봄 환자와의 관계 맺기를 강조한다. 말기 환자의 퇴원 후 돌봄에도 참여한다. 경찰서, 학교, 사찰과도 연계한다. 그는 ‘약사’라는 역할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돌봄의 중개자로 거듭났다. 그녀는 “우린 의사보다 돌봄 환자를 더 오래, 자주 만나요. 약사는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라고 돌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은 물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에이겐지 지역 돌봄의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가벼운 공동체’ 전략에서 나온다. 키즈나, 살롱, 미래회의 등의 유의미한 역할이 주목된다. 사실 이 마을이 놀라운 것은 제도만이 아니다. ‘에이겐지 복지회’, 주민 자조 모임인 ‘살롱’, 미래의 마을을 상상하는 ‘미래회의’ 등은 모두 비공식적, 자발적 관계망에서 출발했다.

조앤 트론토^{J.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이 모임은 주민들이 스스로 말벗이 되고, 고령자 이동을 돕고, 정서 교류의 장을 만든다. 그 관계는 느슨하지만 꾸준하고, 작지만 깊다. 그들은 돌봄 전문가가 아니라도, 제도 바깥에서도 실존적 회복을 돕는 돌봄의 주체들이다.

실례로 에이겐지 인근의 고야 마을은 고령화율이 무려 45%가 넘는 산악 마을이다. 이곳은 전통 염색 식물을 재배하고 유휴 주택을 마을 거점으로 전환하며 지역의 회복력과 ‘돌봄의 정치’를 실천하는 곳이다. 이곳의 돌봄은 화려하지 않다. 겸손하고, 조용하며,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존엄’을 중심에 놓인다.

하나도 원장은 에이겐지 돌봄공동체가 마주한 도전과제와 장애물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에이겐지에는 아직도 수동적인 주민들이 많아요. 자발성과 공동체 정신이 더 살아나야 해요. 아직도 ‘복지는 누가 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죠. 돌봄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라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은 ‘풀뿌리 주민의 시민성’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돌봄은 단순히 행정이라 주민의 일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역설한다.

에이겐지 돌봄 사례는 상호 돌봄의 삶으로 전환하는 돌봄 민주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단순 통합^{integration}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connection}과 수평적 관계 위에서 사람들의 관계 맺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돌봄이다.

이제는 풀뿌리 지역 안에서 시민 참여형 돌봄 거버넌스, 즉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실천이 절실하다. 공적 제도 바깥에서 피어난 돌봄의 힘은 바로 복지 거버넌스와 ‘가벼운 공동체 전략’에서 나타난다.

‘살롱’이라는 이름의 마을 회의실. 가정집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 매주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주민대표, 종교인,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병원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 이 공간에서 돌봄은 관계로 풀리고 민주주의는 일상으로 들어온다.

에이겐지는 ‘복지’를 더 이상 제도적 시혜로 보지 않는다. 이곳에는 복지회, ‘키즈나’ 네트워크, ‘살롱’, ‘미래회



에이겐지 공공도서관장(왼쪽)과 함께

의' 등 다양한 자생적 모임이 존재한다. 이들은 말벗, 병원 동행, 쓰레기 분리수거, 책 배달, 정서적 교류 등 소소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으로 마을 돌봄에 참여한다.

복지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에이겐지 주민의 일상은 비공식적인 공론장에서 연결되고 관계가 더욱 공고화된다. 한 지역에서 살지만 서로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도서관, 그리고 상호 돌봄 현장에서 관계를 다시 심는 것이다.

에이겐지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복지 인프라는 지속적인 '관계 맺기'이다. 학교, 병원, 사찰, 공무원, 상점 주민까지 수평적으로 연결된 협력체계 '팀 에이겐지'는 이 마을의 생명줄이다. 돌봄을 '서비스'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에이겐지의 '가벼운 공동체' 전략에 기반한 돌봄 민주주의 실천이다.

삼목 관계라도 관계 맺기 중심의 통합 돌봄이 돌봄 민주주의의 미래다

물론 에이겐지 공동체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생애주기적으로 돌봄의 장소와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돌봄의 마음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 에이겐지의 지역 돌봄공동체 실험은 완결된 모델은 아니지만 살아 있는 돌봄 민주주의이다.



치매환자 돌봄사례-재가방문 약 복용 도움 패키지

하나도 원장을 비롯해 통합적 돌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의 풀뿌리 세계시민의 태도와 자세가 지역에 뿌리내릴 때 이 공동체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겐지 협업 모델이 한국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실천 실험에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주는가? 한국은 여전히 돌봄을 공공 서비스로 인식한다. 시민의 참여는 부족하고, 제도 밖의 관계망은 드물다. 그러나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시도에서 의료인의 방문 자체가 삶의 끈이 되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는 '하지 근력 저하→외출 곤란→사회적 죽음→정신적 고립'이라는 연쇄 과정이 발생한다.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돌봄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삼목 관계'^{grafting relationship}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방문진료가 효과가 있음을 재택의료 전문가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록 자연발생적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타인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접붙이기식 관계 맺기도 궁극적으로 돌봄 대상자의 실존적 회복과 삶의 질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계를 중심에 둔 통합적 돌봄 모델이 중요하다. 방문 기반 돌봄은 단순 의료 서비스가 아닌 관계 맺기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돌봄은 정말 국가의 몫이긴 한가?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죽음을, 존엄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중심 돌봄, 풀뿌리 복지,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도입이 돌봄의 미래에 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국민의소리

사진=공석기 제공